

신규 아파트 불법 전매도 '계약'

효력 없어지지는 않으나 적발되면 처벌... 문제발생시 법적 보호 못받아

정당부터 말하면 불법 거래 사실만으로 전매 계약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법 전매는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전매를 적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주택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 모두 처벌을 받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가장 큰 피해는 불법거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점. 예컨대 전매제한 기간 내 계약금과 소정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수 희망자에게 분양권을 판 경우, 기한이 도래해 명의를 넘겨주려 해도 매수자와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입주가 임박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 본인이 입을 손해가 아까운

매수자가 현재 매도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채 잔금채무를 깨릴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도자는 계속 시행사의 추심을 받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매도자의 다른 자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신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차례 전매가 이뤄진 경우도 문제가 발생한다. 매도자는 최초 매수자와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계약자가 얽힐 경우 최종 매수자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 뿐만 아니라 최종 매수자가 분양권을 토대로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취한후 도주라도 한다면 현재 명의자인 매도자 또한 권리상 문제에 얽히게 된다. 매수자에게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 매수자가 이미 매도자에게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불했지만 매도자가 신

용불량 상태가 돼 분양권 가압류가 걸린다면 매수자측에서는 남의 빚을 대신 갚지 않는 한 분양권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 향후 민사 등 소송을 진행해도 신용 불량 상태인 매도자는 실질적 변제 능력이 없어 매수자측에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가 속속 들어오면서 투자목적 전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면서 "불법 전매를 했다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 이로 인한 처벌보다는 전매 이후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위험하다. 또 오는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일환으로 '아파트 전매 제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전매를 생각한 청약 당첨자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광영 기자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

이스타항공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스타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디바이스에 맞춰 통합 웹사이트로 오픈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고객 편의성에 중점을 뒀다. 국내 LCC로서는 최초로 간편 회원가입 제도를 도입했고 불필요한 본인인증 과정을 생략했다. 성명,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LCC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나 스탬프 제도와는 차별

화된 E-Credit 서비스도 도입했다. 크레딧은 항공권 이외에도 세금 결제 및 각종 유료 부가 서비스 구매에도 이용 가능하며 이스타항공의 다른 회원에게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지난 2015년 일부 리뉴얼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으로, 디자인 변경은 물론 국내 LCC에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신규 기능과 제도로 고객들의 편의와 혜택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편 이후에도 고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은행 'JB 사이트들 중금리 대출' 스마트뱅킹 상품 출시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중금리 대출 상품인 'JB 사이트들 중금리 대출' 비대면 채널(스마트뱅킹) 상품을 24일(수)부터 확대 출시한다. '사이트들 중금리 대출'은 중신용자의 자금에 호소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5일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신용보증 연계 상품으로 주요 대출대상은 기존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이나 신용이 양호하거나,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있지만 기존 은행 대출상환 수해가 어려웠던 신용등급 4~7등급(CB사 등급 기준)의 중신용 고객이다. 근로소득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사업 영위기간 1년 이상)와 연금소득자(연금 수령 1회 이상)는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거치기간 없이 최장 60개월 안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연 5~연 10% 수준으로 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 및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최고 연 1.00%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고민형 기자

해외수출 상담 참여업체 모집

전북경제통상진흥원 30일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이달 30일까지 해외수출 상담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14~20일까지 6차 7일간 인도(첸나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등 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인구 12.5억명)과 인프라 프로젝트가 급증하는 신흥시장이다. 또

아세안에서 중산층이 가장 발달한 말레이시아는 한류 등으로 동남아 시장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선정업체는 수출 경쟁력과 해당 지역 거점 파트너의 현지 시장성 평가를 거쳐 항공료 50% 현지 바이어 섭외와 1:1 상담, 통역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063-711-2041)으로 문의 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이광한 회장은 "뜻을 모아 전달하는 장학금이 수여자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문건설협 전북도회, 전문건설 장학금·장학증서 수여

25명에게 총 2,260만원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는 23일 전주 전문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제20회 전문건설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고교생 12명, 대학생 13명 등 25명에게 총 2,26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광한 회장은 "도내 1,600여 회원사의 뜻을 모아 전달하는 장학금이 수여자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회원사 임직원 자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총919명에게 7억 9,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신광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을지연습 훈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는 22~23일 국가차원의 종합비상대비 훈련인 '2016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22일에는 전북본부 직원 709명 비상

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중무계획을 점검했다. 또 23일은 부안군 고마저수지를 계기로 안보 의식 형성과 행동요령 제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김학원 본부장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동원업체, 유관기관, 농업인 등이 함께 훈련에 참여했다"면서 "을지연습을 계기로 안보 의식 형성과 행동요령 제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넓은집 새롭게 고쳐요"

농어촌공 익산지사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선호)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사지사(지사장 임우순)와 함께 지난 22일 최모(64세, 군산시 대야면)씨의 가구를 찾아가 노후주택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추석 명절이 오기 전에 주택 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지붕재를 비롯하여 거실 도배, 장판 공사 및 난방공사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석구석 살펴며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다습동지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최모씨의 주택은 매우 오래되어 냉·난방에 취약하고 지붕도 슬레이트로 만들어져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2007년부터 다습동지복지재단과 협력해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밖에 복지시설 봉사, 영농 일손 돕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진짚상 차려드리기 사업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CU-티머니 '교통+전자머니+적립' 한번에 되는 멤버십카드 출시

CU가 오는 25일 한국스마트카드와 손잡고 CU(씨유) 멤버십과 티머니 카드의 혜택을 한 장에 모은 'CU+티머니카드'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카드와 전자머니 기능을 탑재한 티머니 카드에 CU 멤버십 혜택을 더한 카드다. 이 카드를 이용해 CU에서 상품(담배, 술 제외)을 구입할 경우 멤버십 카드를 따로 개별 필요없이 결제와 동시에 2%의 멤버십 포인트가 적립된다. 500포인트 이상 쌓이면 전국 CU에서 현금처럼 포인트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카드를 구입한 후 CU 멤버십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카드 등록을 마치면 카드로 결제한 교통 수단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